

이재명, 탈이념·탈진영 ‘실용주의’ 선언

신년 기자회견…“이념·진영 밥 먹여주지 않는다” 강조 기업경쟁력이 국가경쟁력 ‘민주도 정부지원 시대’ 전환 민주당 지지율 하락엔 “국민의 뜻이니 겸허하게 수용”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3일 탈이념·탈진영의 현실적 실용주의를 선언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따른 조기 대선 가능성과 관련, 야권의 유력 주자로 떠오르고 있는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념과 진영이 밥 먹여주지 않는다”며 “탈이념·탈진영의 현실적 실용주의가 위기 극복과 성장 발전의 동력”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기업경쟁력이 곧 국가경쟁력인 시대”라며 “정부가 모든 것을 결

정하는 시대에서 ‘민간 주도 정부 지원’의 시대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일자리가 기업만 만들고, 기업의 성장 발전이 곧 국가 경제의 발전”이라며 “기업이 앞장서고 국가가 뒷받침해 다시 성장의 길을 열어야 한다”고 구체적인 성장 방법론을 제시했다. 이 대표는 “지난 2년여간 윤석열 정권의 실정과 시대착오적 친위 군사쿠테타 때문에 우리는 너무 많은 것이 파괴되고 상실됐다”며 “이제 회복과 성장

이 이 시대의 가장 다급하고 중대한 과제”라고 말했다. 이어 “전 세계로 확대되는 정치 극단화, 우리 사회의 심각한 양극화도 경제 양극화가 원인”이라며 “새로운 성장 발전의 공간을 만들어 성장의 기회도, 결과도 함께 나누는 공정 성장이 실현 가능한 양극화 완화와 지속 성장의 길”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또 “올해를 자본시장 선진화를 통해 K 디스카운트를 해소하는 원년으로 만들어야 한다”며 “투명하고 신뢰가 능한 주식시장의 선진 시스템을 갖추고 효율적 경영을 방해하는 비정상적 지배 경영구조를 혁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2기와 관련해서는 “한미동맹의 강화, 전략적 경제 파트너십 강화가 중요

해졌다”며 “(한미가) 변함없는 무역과 투자 파트너로 자리 잡도록 반도체·배터리·에너지 등 주요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현안에 대한 지지율과 질의응답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을 핵보유국(nuclear power)으로 지칭한 데 대해 “미국 정부의 정리된 입장이 아닌 것 같다”며 “북미 대화가 재개될 경우 대한민국 ‘패싱’ 우려가 큰 만큼 북한을 설득하고 길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탄핵 정국에서 당 지지율이 하락세인 것에 대해 이 대표는 “국민의 뜻이니 겸허하게 수용할 수밖에 없다”며 “민주당에 더 큰 책임과 역할을 기대하신다고 보고 더 낮은 자세로 겸허하게 책임감을 갖고 임하는 게 민주당이 해야 할 일”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국 현안 등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 대표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회를 통과한 법안에 재의요구를 행사하고,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것에 대해선 강하게 비판했다. 이 대표는 “최 권한대행의 권한 행사 기준이 오락가락, 멋대로”라며 “본인에게 유리한 권한을 함부로 행사해 거부권을 남발하는 등 철저하게 내란 소요 세력을 옹호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부적절한 국정운영을 하고 있지만, 최대한 인내하고 기다린다”며 “최소한의 법과 상식은 지키라”고 촉구했다. 조기 대선 가능성이 대두되는 상황에서 정치보복을 하지 않겠다고 선언할 의향이 있는지 묻는 말에는 “정치 보복은 절대 하면 안된다”며 “국민 통합을 위해 서로도 이런 단어조차 없었으면 좋겠다”고 답변했다. /김진수 기자

오늘의 날씨

해돋이 07:37 해질 17:53
달돋이 02:54 달지 12:48

인천	서울	춘천	강릉
-2/7	-2/9	-5/8	1/8
대전	전주	대구	부산
-4/10	-2/11	-3/12	3/5
목포	제주	여수	고흥
0/9	5/14	3/11	4/13

● 생활정보지수

너들이 60 빨래 70 세차 80 운동 50
감기 조심해요 야외건조 좋아요 세차하기 좋은날 운동 후 체온 유의

● 바다 날씨

위치	오전/파고(m)	오후/파고(m)
서해 앞바다	0.5-1.0	0.5-1.0
남해 앞바다	0.5-1.0	0.5-1.5
서부 앞바다(북)	0.5-1.0	0.5-1.5
서부 앞바다(남)	0.5-1.5	1.0-2.0
남해 서부 앞바다	0.5-1.0	0.5-1.5
남해 서부 앞바다(동)	0.5-1.5	1.0-2.5
남해 서부 앞바다(서)	0.5-1.5	1.0-2.5

● 전국 날씨

날짜	광주	서울	강릉	대구	제주
1월 25일(토)	(0/11)	(0/9)	(3/6)	(0/10)	(8/13)
26일(일)	(-1/9)	(-1/7)	(2/6)	(0/9)	(7/11)
27일(월)	(2/6)	(2/4)	(2/8)	(2/6)	(7/8)

▶ 날씨안내 : 국번없이 131

김지사 “행정체제 개편, 실질 권한 쥐야”

김영록 전남지사가 미래지향적 행정체제 개편 자문위원회의 ‘지방행정체제 개편 권고안’과 관련해 “행정통합의 구체적 로드맵 등이 없어 아쉽다. 실질적 권한을 가진 행정체제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23일 입장문을 통해 “수도권 집중과 지방소멸 문제 해결, 인구구조 변화 대응 차원에서 의미 있는 대안

이다. 하지만 행정통합에 대한 구체적 로드맵과 정부 지원방안 등 보다 종합적이고 실질적인 내용이 부족한 점이 아쉽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그는 “광주·전남은 오랜 역사 동안 경제·사회·문화적 한 뿌리 공동체를 이루며 공동 생활권을 형성해 왔으며 전남도는 지속가능한 미래 발전과 성장동력을 만들기 위해 광주·전남

0% 이상을 지방정부에 배분하는 등 실질적인 행·재정 지원 방안이 구체적으로 마련돼야 한다”며 “통합 행정구역 명칭은 인구밀도가 높은 광역시와 농촌 등 넓은 면적을 차지하는 광역도를 아우르는 통합 지방정부로서 ‘통합시’보다는 독일 연방제 형태의 ‘통합주’가 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는 “지방자치 30주년을 맞는 올해 중앙과 지방 간 진정한 수평적 협력 관계를 구축해 진정한 연방제 수준의 지방자치를 실현하도록 앞으로 정부와 국회가 전폭적인 법·제도적 지원방안 마련에 적극 나서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양시원 기자

설 연휴 강추위…많은 눈 소식도

“귀성·귀경길 교통 안전 주의해야” 이 내릴 것이라는 게 광주지방기상청의 설명이다. 설 명절 연휴 기간 광주·전남은 매우 춥고 많은 눈이 내리겠다. 23일 광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설 연휴가 시작되는 25일 광주·전남 최저·최고기온은 각각 영하 4도~4도, 9~12도로 예보됐다. 26일 최저·최고기온 분포는 모두 전날과 비슷하다. 27일 최저기온은 연휴 시작보다 소폭 오른 0~4도로 전망됐으나 최고기온은 4~7도로 떨어지겠다. 27일부터 광주·전남에 비 또는 눈이 내릴 것으로 예보됐다. 강수·강설량 예보는 아직 발표되지 않았지만 28~29일 광주와 전남 북부를 중심으로 많은 눈

따뜻하고 행복한 설 명절 보내세요!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GWANGJU DONGGU COUNCIL

광주동구의회
GWANGJU DONGGU CITY COUNCIL

김현숙 의원 (의회운영위원장)	박종균 의원	노진성 부의장	문선화 의장	이지애 의원 (기획총무위원장)	박현정 의원 (예산결산위원장)	김재식 의원 (사회도시위원장)